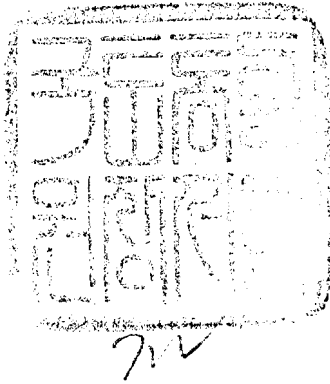


317.22.
321.8P

本 研究報告書는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北韓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위촉한 特殊研究報告書임

北韓의 實質消費生活 研究

1984. 12.



2
1984. 12. 11
1984. 12. 11
1984. 12. 11
1984. 12. 11

執筆者: 李 滿 基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長)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序 論	3
2. 自給自足 및 開放의 可能性과 限界	5
가. 共產國家의 閉鎖性과 開放 (中共의 境遇)	5
나.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韓 經濟交流 可能性	16
3. 成長·分配와 生活水準	25
가. 成長이 貧困을 脫皮시킨다	25
나. 南北韓의 所得比較	32
다. 勞動과 賃金所得	40
4. 住民生活과 社會保障	47
가. 消費財 生産과 生活水準	47
나. 住宅 및 社會間接資本과 住民生活	57
다. 社會化와 個人生活	63



1. 序 論

이 論文은 北韓의 實質消費生活水準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理論적으로 體系化하여 결론짓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消費水準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所得水準과 消費性向의 두가지이며 消費性向에 대해서는 平均 및 限界消費性向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限界消費性向이던 平均消費性向이던 그 消費函數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은 現在, 過去, 未來의 所得, 이웃의 所得, 家長의 年齡別所得과 支出, 物價 및 각종의 社會保障制度 등의 모든 환경에 의존된다고 말할 수 있다.

北韓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國民所得의 水準이 消費生活의 水準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北韓의 經濟體制는 우리처럼 開放된 經濟가 아니고 閉鎖적인 自給自足經濟이며, 또한 消費者가 可處分所得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消費財를 선택하는 市場經濟가 허용되지 않고 中央集權적인 計劃當局이 生産을 指示하고 生産物을 取給하는 計劃經濟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限界消費性向과 같은 消費者主權을 전제로 한 理論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 基礎消費財의 生産과 供給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消費財生産의 餘裕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生産物의 質적인 向上과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中央計劃當局이 아닌 實質消費者의 의사

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市場經濟의 기능이 도입되어야 하는바, 과연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검토해야 하겠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住民들의 消費水準의 向上을 당장의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開放化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自給自足으로부터 開放에의 이행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論文의 집필내용은 위의 세가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 순서는 뒤로부터 거슬러서 첫째 開放에의 이행과 市場經濟의 도입가능성, 둘째 生産의 效率性和 所得向上을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가능성, 셋째 計劃經濟下에 있어서 生産과 消費의 水準의 변화와 그 限界性 등을 순서대로 검토하고 결론부분을 도입코저 한다.

2. 自給自足 및 開放의 可能性과 限界

가. 共產國家의 閉鎖性과 開放 (中共의 경우)

지난 9월말 北韓은 赤十字社를 통해 우리에게 水災民救護品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우리측이 그들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歴史的으로 하나의 契機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北韓側이 우리에게 구호품을 보낸 것은 經濟問題라기보다 政治的 外交的인 분야의 평가에 속한다고 보겠으나, 한편 經濟的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넉넉하다거나 반대로 현저한 격차를 감추기 위한 糊塗策의 두가지중에 하나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1人當 GNP가 우리의 절반이 채 못되므로 後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北韓은 또한 9월 8일 西方側으로부터 合作投資를 誘致할 목적으로 合營法을 제정하였다. 外資導入을 帝國主義의 買辦資本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아우타르키를 自力更生의 原則이라고 美化하여 봉쇄경제를 주장해온 그들이 이미 70년대부터 外債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행치 못해 外債依存조차 어려워지자 그야말로 買辦資本이라고 비난해온 대상이 되었던 直接投資까지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西方側은 市場經濟가 없고 收益性이 불확실한 北韓에의 進出을 外面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北韓이 資本主義 先進國들의 자본을 도입하려면 부분적으로나마 市場經濟의 원리를 도입하고 企業의 收益性을 보장하기 위

한 營利追求를 허용하는 變化가 따라야 한다. 최근 中共이 보여준 變化가 바로 中央集權的 生産과 配給으로부터 부분적으로 分權的 生産과 市場經濟의 原理를 도입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日本의 時事通信에 따르면 北韓은 淸津과 元山港의 개방을 위한 特定經濟區域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北韓은 봉쇄정책이 經濟發展에 주는 限界性を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극도의 독재와 劃一的思想의 지배, 심지어 暴力君主의 世襲體制를 실현시키기 위해 對外開放이 힘들다는 입장에 있는 北韓의 對經濟 政治優位의 지배체제에 있어 經濟發展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둘 수 있느냐가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西方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과의 交流가 우리측의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日本과의 交流에도 우리측의 입장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와, 이에 반하여 赤化野慾을 버리지 않고 軍事力을 증강시켜온 政治的 욕망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우리에게 대한 긴장완화, 對話와 交流, 經濟協力 등의 일련의 전개 전망에는 너무나도 많은 變數가 작용되므로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北韓의 産業投資의 도입을 위한 合營法이 그 實效性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한 그러한 産業投資가 어느 정도 실현된

다 하더라도 그것이 住民들의 消費生活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産業投資에 대한 개방에 있어서, 西方側의 資本家가 企業의 收益性을 요구할 것이므로 市場經濟의 부분적인 허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先進資本主義國家로부터의 技術導入을 위한 人力交流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경우 社會 및 文化的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中共의 開放 및 實用主義路線의 선택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學者에 따라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中共이 韓國 動亂에 참전한후 미국과 등을 돌리고 특히 과거 東洋文化的 중심이던 傳統文化를 毛澤東思想으로 바꾸기 위한 文化革命은 中共의 經濟 및 社會發展을 크게 後退(정체)시켰다고 평가된다.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이러한 中共社會를 다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일면도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文化革命의 기간은 15년간이지만 中共의 經濟發展은 그 몇배의 空白期間이 있었던 것과 같았다. 지난 15년간 中共은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 약간의 交流가 있었을 뿐 모든 資本主義 先進國과 담을 쌓고 지냈던 것이다.

毛澤東時代의 中共은 第3世界外交를 통해 이들에게나마 求心力을 행사하고 싶었으며 이른바 非同盟國들에게 독자적인 원조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줄 것(資本과 技術)이 없어 종이호랑이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이 鄧小平의 등장이후 經濟改革을 필요로 하게 한 것이다. 그 제도적 변화는 첫째 分權化와 둘째 消費

者革命과 세제 營利主義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資本主義의 市場經濟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政治적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면 經濟적으로는 實用主義를 따르겠다는 것이 鄧小平의 생각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農業의 分權化 (decollectivization)이다. 그것은 土地의 中央集權的 所有와 集團農場으로부터 個人의 生産意慾을 자극하기 위한 生産物의 處分權을 일부 개인농민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毛澤東의 死後 中共의 大權을 물려받은 後繼者들에게 中共經濟는 아주 비참하였다. 工業生産의 質은 극히 저수준이고 農業生産은 人口增加를 따르지도 못하여 1人當 食料品消費는 1950년 이래로 조금도 向上되지 못하였다. 자고리아(D. S. Zagoria)에 의하면 한 中共의 指導者는 1억의 中共農民이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실토하였고 홍콩의 한 간행물은 1979년에 農村人口의 4분의 1인 2억의 人口가 半饑餓狀態에 있다고 보도하였다고 한다.¹⁾ 이와 같은 현실이 鄧小平으로 하여금 經濟體制의 改革을 要求하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農業의 分權化를 가장 색다른 개혁으로 지목하는 것은 中共人口의 약 80%가 農民이고 農業이 압도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農業部門의 改革은 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²⁾ 1979년 이후 中共의 農村에 채택된

1) D.S. Zagoria, "The Moscow - Beijing Détente", Foreign Affairs, Spring 1983, pp. 853~873.

2) R.F. Dernberger, "The Chinese Search for the Path of Self-sustained Growth in the 1980s: An Assessment", The China Business Review, Nov.~Dec. 1983.

農家責任制(household responsibility)는 일단 개별농가나 農家들이 集團農地의 一部를 地方官廳과 계약하여 一定量의 生産을 할당받고 난 후 이 목표량을 超過達成하면 超過分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일부 生産割當과 일부 市場機能을 혼합한 체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³⁾ 특히 官民間의 계약기간이 종래에 1~3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장기화 되었다.

이와 같은 農家責任制의 실시에 따라 私的農土가 크게 擴大되고 대체로 全集團農地의 耕地面積은 15%를 占有하게 되었다. 특히 農民에게 超過生産物의 處分機會를 줌으로써 農産物市場을 형성케 되고 1979년 이후 都市地域內에서의 農産物에 대한 民間市場이 合法化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農村經濟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中共經濟의 저명한 전문가인 라르디(Nicholas R. Lardy)는 그것으로 中共의 基本的 變化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中共經濟의 변화는 北韓經濟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示唆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共產圈內의 東歐나 소련에 있어서도 종래의 스탈린主義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經濟的 現實이 理念에 못지않게 중요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自由貿易을 이상으로 하는 資本主義國家들도 자기나라의 經濟的 現

3) "Party Document on Rural Work", Beijing Review, February 20, 1984, p.6.

4) N.R. Lardy, Agriculture in China Moder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3, pp.88~89.

實에 따라 保護貿易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資本主義 先進國들도 점차로 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的 現實은 理念이나 理想에 비하여 한층더 절실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世界各國은 自由貿易이던 保護貿易이던 國際分業을 통해 貿易으로부터 相互利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貿易을 하지 않고 自給自足만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自給自足 (Autarky)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 自給自足이 적을수록 外部의 충격에 대한 抵抗力이 적다.

둘째 經濟의 對外依存도가 높으면 政治的 對外依存度も 커질 위험성이 있다.

셋째 自給自足率이 낮으면 對外貿易이 봉쇄되는 극한상황에서는 국민의 生存에 위험을 받게 된다.

넷째 輸入依存도가 높으면 國內産業이 外國産業에 의해 도태되고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일부 식량과 같은 戰略産業의 自給率이 적을수록 社會不安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다섯가지의 이외에도 自給自足이 가능하다면 이를 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예컨대 지난 석유파동으로 非産油國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가 잘 설명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있어 石油의 輸入依存을 止揚하고 모든 石油産業과 石油消費를 등지고 옛날처럼 마차나 끌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經濟의 現實은 여러가지 관계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귀결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의 스탈린은 東歐의 衛星國들로 하여금 對西方貿易依存을 끊게하여야 소련에의 의존을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풀이된다. 사실상 소련은 龐大한 土地와 資源과 2억의 人口를 갖는 國內市場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地球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담을 쌓고 편하게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28년 제 1차 5개년계획이후 1世紀이상은 의도적으로 自給自足政策을 추구해 왔으나 결국 1960년대부터 東西貿易과 對開發途上國에의 門戶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련과 같은 共產圈이 아직도 資本主義國家에 비하여 폐쇄적이지만 완전한 自給自足이 불가능한 것은 모든 生産物이 國內에서 넉넉하게 生産될 수 없기 때문이다. 食糧이 不足하여 미국에서 수입하고, 技術이 뒤떨어져 유럽 先進國들에게 송유관을 건설하게 하고 日本에게 제 2의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에 참여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어느 나라이든 自然資源이나 原動力, 資本 및 技術 등의 生産要素의 賦存도가 상대적으로 같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比較優位를 갖는 産業에 力點을 두고 貿易을 개방하는 것이 經濟發展에 훨씬 유익한 것이다. 특히 國土가 좁고 絶對人口가 적은 나라, 經濟小國은 더욱 많은 比率의 貿易依存이 요구된다.

北韓도 韓國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좁은 國土에 資源이 不足하며 人口 또한 절대규모가 充分치 못하다. 따라서 外國과의 貿易

이 經濟發展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나 中共이 그러했듯이 共產國家들의 국민이 社會主義의 理念에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했다고 해도, 그들의 독재정치와 西方國家의 自由主義를 비교할 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自給自足を 名分으로 對西方의 門戶를 開放하지 않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共產國家들도 經濟的 貧困을 타개하기 위하여 對外開放이 절실하게 필요하여짐에 따라 서서히 이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그동안 소련과 東歐圈에서 보았고 최근에 中共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지적하였듯이 中共의 農業改革은 너무나 절실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1952년에서 1972년 사이에 人口는 3분의 2가 더 늘어났으나 土地는 일정하므로 1人當耕作可能面積은 그만큼 減少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만일 生産性を 높이지 못하면 食糧生産을 人口成長보다 앞지르게 할 수 없으며 비록 현재의 中共指導者들이 人口增加를 강력하게 억제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심각한 食糧難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土地의 制約에 직면하여 中共의 지도자들은 농민의 生産性を 높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개혁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스탈린式 教條主義者들도 이러한 현실을 반박할 수 있는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北韓의 경제는 國土가 좁고 資源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中共보다 對外依存의 필요성이 한층 더 크다고 생각하나 食糧問題에 있

어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도 食糧難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의 근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自給自足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量的인 不足은 물론이며 전반적으로 食生活水準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으나 농민들의 식량은 年末決算分配에서 現物과 現金을 분배받고 있는데 결국은 日帝때에 小作人이 지주에게 받던 가장 혹심했던 때의 4대 6의 分配方式보다도 더욱 가혹하다고 한다.⁵⁾ 농민에게는 非農民에게와 같은 配給制度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生産物의 절반이상을 수탈당하고 나면 所得의 부족은 물론이며 農業生産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振作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中共이 農業改革을 필요로 했던 사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며 中共과 같은 分營化가 農業發展에 效果的일 것으로 생각된다.

中共의 개혁에 있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농업혁명 뿐 아니라 都市의 消費者革命이다. 이것은 對外開放을 위하여는 절대로 필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北韓에 있어서도 消費者革命을 얼마나 진행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큰 관심사이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도 後進國이 先進國과 交易을 하게 되면 생산과 기술의 도입은 힘들고 消費水準의 모방이 先行되어 과다한 소비를 가져온다하여 너시 (R.Nurkse)는 이를 誇示效果 (demonstration effect)

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1026.

라고 불렀고 이것이 資本形成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共產社會의 아우타르키(폐쇄정책)는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대신 消費의 모방이 없이 生産의 모방도 있을 수 없으므로 녀시는 이를 敗北主義的 結論이라고 지적했음을 상기할 수 있다.⁶⁾ 어쨌던 對外開放을 위하여는 폐쇄적이던 때의 消費生活에 一大革命이 요구된다.

中共의 中産階級은 1년의 봉급과 같은 TV수상기와 테이프레코더를 서둘러 구입하고 냉장고를 서슴치 않고 구입하며 몇년전만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치스러운 거실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수준이 아직도 극히 貧困한 中共이지만 毛澤東의 내뱉 25년만에 시작된 위와 같은 消費者革命은 이제 다시 반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⁷⁾

이와 같은 消費者革命은 生産者革命이 따르지 못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쇄적이던 共產國家나 또는 개방된 後進國에서 工業革命을 이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共產國家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計劃經濟에 의해 指示받아 生産해온 生産組織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쟁 원리에 따른 生産方式을 도입하여 生産性和 競爭力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資本主義的인 生産組織을 어디까지 도입하게 될지는 未

6) R. Nurkse, Th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Chap.4.

7)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 1983, p.1.

知數이다.

그러나 분명히 中共에 있어서는 生産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979 년이후 中共의 企業들은 국가의 指針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利潤의 일부를 企業內部에 留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利潤動機를 부여하는 것이다. 中共의 企業은 留保資金으로 勤勞者의 보너스,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공장건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다. 노우턴 (B. Naughton) 에 의하면, 그것은 生産者들로 하여금 計劃立案者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市場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더우기 중요한 것은 中共이 비효율적인 企業을 폐쇄시키는 자본주의의 이윤원리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 또는 정통적인 소비에트式的 計劃經濟에 있어서 기업의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計劃立案者들에게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非效率的인 設備를 보다 전문화된 설비로 흡수시키는 일은 있으나, 완전한 조업의 포기는 計劃經濟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中共의 신문에는 폐쇄된 企業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國家經濟委員會 (the State Economic

8) Barry Naughton, "Industrial Management", The China Business Review, Nov. ~Dec. 1983, pp.14 ~ 18.

Commission)는 目標利潤을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國家企業들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을 곧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中共의 모든 企業은 利潤을 내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포기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⁹⁾

나.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間 經濟交流可能性

北韓은 지난 9월 8일 「合營法」을 제정하여 西方國家의 合作投資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9월 14일 大韓赤十字社가 北韓赤十字社의 水災民救護物品을 받기로 동의함에 따라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同物品을 韓國側에 전달함으로써 드디어 南北韓間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쌀 5만석, 시멘트 10만톤, 천 50만m, 기타 의약품 등 水災救護品을 실제로 전달하게 된 것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다.

그동안 1954년 休戰以後 64년까지 北韓側에서 다섯 차례, 1970년부터 84년까지 韓國側에서 여섯 차례의 經濟交流의 제의가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단 한번도 受諾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北韓의 北赤物資提供提議를 韓國側이 수락함으로써 物品輸送이 이루어진 것이다. 韓國은 분명히 국제적십자사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할만큼 水災復舊에 대한 經濟的인 餘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제의를

9) The China Business Review, 前掲號, p.4.

수락함으로써 쌍방의 交流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水災가 생기기 10일전인 지난 8월 20일 全斗煥大統領의 기자회견을 통해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필요성을 力說하고 北韓住民들의 生活向上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技術과 物資를 北韓側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國內外에 천명하였다. 北韓은 이러한 韓國의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그후 韓國의 水災를 계기로 자신들의 善心を 보이려고 物資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韓國은 그들에게 善心の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韓國의 經濟發展이 北韓에 비하여 壓倒的으로 優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게 먼저 善心を 쓰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韓國이 南北韓의 經濟交流를 더욱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北韓은 水災救護物資의 제공으로 지난해 버마事件으로 인한 잘못을 무마하고 國際社會에서의 孤立을 모면하며 우리의 反共意識(北韓嫌惡)을 이완시켜 北赤物資提供으로 그들의 經濟生活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逆宣傳하여 金日成 金正日의 세습체제를 강화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제의를 수락한 것은 韓赤이 밝힌 바와 같이 人道的次元에서 南北韓 同胞들이 서로 相扶相助의 길을 트고 物資交流의 바탕을 마련하며 나아가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이산가족의 만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北韓의 對外開放과 아울러 南北韓間의 經

濟交流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北韓이 이 이상 더 폐쇄정책에 의한 經濟發展을 지속하기 어려운 限界性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젠가 北韓이 단계적으로 開放되고 南北韓의 交流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은 共產主義의 經濟運營方式이 資本主義의 方式으로 다소나마 변질되며 특히 市場機能을 점차로 도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體制의 변화가 北韓의 消費生活에 무엇보다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됨은 再言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최근 中共의 消費者革命이 北韓에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中共과 같이 農業生産에 分權化가 이루어지며 損失企業을 폐쇄하는 등 모든 企業에게 利潤動機를 적용시키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發展이 對外開放이 없는 限界性에 이르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최근 合營法을 제정하여 西方側의 資本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 것이다. 資本主義를 帝國主義라고 부르고, 多國籍企業 또는 合作企業을 買辦資本이라고 비난해오던 北韓의 當局者들이 資本主義의 多國籍企業을 유치하기 위하여 合營法을 제정하게 된 것은 隔世之感이 있는 것이다.

北韓의 合營法이 中共의 內外合資經營企業法과 구체적으로 같은 것인지는 아직 정밀하게 알 수 없으나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中共國務院의 관할아래

에 있는 國際問題研究所의 季刊紙에서 李衛國이 쓴 논문에 따르면 中共에 있어서 多國籍企業에 대한 평가는 資本主義를 信奉하는 우리들 만큼이나 긍정적이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多國籍企業이 開途國에서 얻은 利潤중에서 다시 開途國에 재투자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로 開途國에 대해 技術援助契約, 經營契約, 판매계약 등 非資本參加形態의 契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多國籍企業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바, 北韓의 合營法 制定과 淸津, 元山의 開放說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된다. 이와 같은 合作投資의 허용과 開放을 위한 特定地區의 설정설은 中共의 改革과 형식적으로 같은 점도 있으며 따라서 장차 北韓에 있어서도 中共의 開放과 유사한 과정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 中共과 같은 개혁의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合作投資의 실질적인 파트너는 대부분 日本으로 기대되고 있고 特定開放地區도 日本과 가까운 東海岸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전망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이 經濟發展을 위해 對外開放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며 南北韓의 經濟交流를 검토하게 될 때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10) 中共 國際問題研究所刊, 國際問題研究, 1984.4월, 第2期號.

을 기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의 閉鎖社會가 經濟交流를 위해 開放社會로 이행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칼 포퍼 (K.R. Popper)는 人類의 歷史를 開放社會와 閉鎖社會의 투쟁과정으로 규정하고 開放社會로의 移行은 人類가 낳은 가장 위대한 革命이라고 말하였다.¹¹⁾ 開放社會는 그만큼 귀중한 歷史的 産物인 동시에 北韓과 같은 全體主義社會에서는 얻기 힘든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社會發展過程에서 開放化에의 移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社會構造의 신축성이다. 이는 成就的 基準에 의한 社會移動의 원활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社會는 李朝封建主義에 있어 兩班과 常人的 계층, 그밖에 四民思想에 따른 직업차별 등의 의식이 지배되었으므로 韓國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계층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한없는 발전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官僚選好思想 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黨性和 身分의 차별이 과거부터 出生時부터의 신분적 차별을 받아온데 계승하여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으로 박히었으며 이러한 社會的 固定觀念이 金日成의 權力世襲과 唯一思想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러한 社會構造의 경직성은 開放化에의 이행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11) K.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이한구譯, 민음社, 1982).

둘째로 意識의 自由化가 개방화의 조건이다. 이것은 劃一的 理念, 教條的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相對主義, 實用主義에 입각하여 多様な 人間行動의 自由를 보장하게 되는 사회에의 변동이다. 北韓의 女性이 制服과 같이 통일된 흰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다니던 때에 비하여 輕工業을 발전시켜 무늬와 색깔이 있는 衣服을 입게 된 것은 다소의 변화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金日成의 偶像化와 唯一思想이 조금도 변화없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이 毛澤東의 死後, 소련의 스탈린의 死後의 후계자에 의한 教條主義로부터 脫皮와 같은 변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北韓社會에서 唯一思想의 변질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관가름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外部와의 交流를 통한 門戶開放이 개방사회의 요소이다. 貿易과 資本과 技術의 交流를 비롯하여 外來文物의 도입과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開放化는 이 세계의 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과연 얼마나 開放化를 이행할 것인가는 위의 두가지 조건에 크게 의존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研究의 主題가 아니므로 깊은 分析은 생략하겠으나, 결과적으로 開放化의 移行은 住民生活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해 言及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統一院의 위촉 또는 그밖에 北韓研究所 등의 北韓社會의 變化와 開放化의 可能性에 대한 學者들의 研究결과를 대체로 肯定

과 否定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확한 評價는 상당한 時間이 경과한 후에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分析의 몇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金甲喆教授는 北韓社會의 변화요인으로 소련, 東歐의 體制的 변화 패턴과 中共體制的 변화를 검토하고 그것이 北韓體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北韓의 共產主義體制的 변화가능성과 1980년대에 있어서의 對內的 및 對外的 要因을 분석하였는데 對內的 要因으로는 ① 金日成·金正日 權力繼承問題, ② 社會主義經濟 發展에 있어서의 經濟管理方式의 변화 ③ 社會構造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對外的 要因으로는 ① 소련의 對中包圍戰略 ② 中共의 對蘇包圍戰略, ③ 美·日의 對蘇牽制, ④ 東歐諸國의 修正主義, ⑤ 西方諸國의 영향, ⑥ 韓國의 國力伸張, ⑦ 第3世界의 영향 등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¹²⁾

일반적으로 北韓社會의 開放化는 그 개방과 사회의 구조의 변화라는 두개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은 政治的 要因과 經濟的 要因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共產主義의 社會史는 社會主義的 改造와 經濟的 近代化라는 두개의 과업을 안고 시작되며 그것이 社會構造의 변화와 經濟的 變화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이것은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는데 치중하는 것과 工業化와 經濟發展을 추구하는 두가지의 과제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가에 대

12) 金甲喆,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변화전망과 개방유도방책 연구, 통일보고서, 1981.

한 갈림길에 봉착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련의 경우 社會主義의 건설 즉 全體主義的 動員體制를 指向했던 스탈린이 死亡한 뒤, 흐르시초프 - 브레즈네프에 이르는 사이에 「階級없는 共產主義社會 建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目標를 점차 멀리하고 工業強大國, 軍事超強大國을 지향하는 경제발전에 몰두하였다. 잘 아는대로 中共은 앞에서도 분석하였듯이 毛澤東死後 1979년부터 최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毛澤東의 文化革命(이데올로기)을 청산하고 鄧小平의 實用主義(경제발전)가 앞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東歐의 共產國들은 바르샤바條約과 코메콘 및 소련軍의 現地 주둔으로 主權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政治·經濟·軍事·組織面에서 소련에 예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東歐는 현재 體制內의 요구와 經濟改革의 압력으로 일종의 갈등(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¹³⁾

北韓의 경우에는 體制理念의 요구와 經濟改革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經濟發展을 위한 開放化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社會構造의 다음과 같은 變化가 先決되어야 하겠다.

첫째, 金日成의 1人體制의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主體思想의 배타적 성격이 변질되어야 하며, 둘째 歸屬的 社會構造가 갖고있는 硬直性을 탈피하여 成就指向的인 社會構造의 신축성이 형

13) 全寅永, 「東歐共產圈體制의 自由化研究」, 마산대학 통일문제연구소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논문, 1983.8.12.

성되어야 하며, 세계 劃一的 社會化에 따른 意識構造의 盲目的性을
와해하여 意識의 相對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껴 外部 文物의 자
연적인 導入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門戶開放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條件은 궁극적으로 南北韓의 戰爭狀態 종식을 전제로 한 平
和定着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北韓은 社會開放을 통한 體制修正이 불가피하게 요구
되는 經濟社會 發展의 限界성과 諸問題에 직면하고 있어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연
한 對內外的 現實에 불구하고 현재 北韓社會의 內部構造를 변화시
킬 수 있는 힘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金日成 金正日의
權力世襲을 위해 그들의 唯一思想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모든 것
에 우선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社會構造의 內在的 矛盾은
점차로 住民生活의 희생과 不滿을 축적시켜 「스스로를 파괴하는 씨
앗」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¹⁴⁾ 그 씨앗이 굳게 다져진 唯一思想의
地殼을 뚫고 나올 때 經濟的 改革과 더불어 社會構造의 신축성있
는 변화를 일으켜 開放化가 진전될 것인데 그 시기는 정확하 예
측할 수 없으나 가깝지도 않으며 아주 멀지도 않을 것이다.

14) 都興烈, 「北韓社會의 開放化 要因과 展望」, 統一論叢, 國土統一
院, 4卷1號, 1984年, pp.68~92, 특히 p.91.

3. 成長·分配와 消費水準

가. 成長이 貧困을 탈피시킨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消費는 所得의 函數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도 消費生活 水準의 向上은 所得의 增加, 즉 經濟의 成長에 의존될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消費는 市場經濟의 原理가 적용되지 않고 中央當局의 配給에 의존되므로 GNP의 成長과 比例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社會主義者들은 成長보다도 分配에 力點을 두고 資本主義經濟는 貧富의 隔差를 擴大시킨다고 비난하였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社會主義者들이 말하듯 經濟成長은 貧富의 격차를 확대시키므로 잘못인가. 또한 資本主義經濟學들은 分配의 問題를 전혀 外面하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資本主義經濟의 발전이 반드시 貧富의 隔差를 확대시키고 貧困한 階層을 더욱 貧困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며, 또한 資本主義經濟學者들이 分配의 問題를 外面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經濟學의 초기에 가장 많은 貢獻을 한 리카도(D. Ricardo)는 그의 著書『政治經濟와 課稅의 原理』(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의 서문에서 分配問題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土地의 生産物의 一 社會의 세 階級, 즉 土地의 所有者, 그 耕作에 필요한 資本財 또는 資本의 所有者,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는데 勤勞를 제공하는 勞動者의 사이에 分割된다 一 分配를 규정하는 法則을 확정 짓는 것은 政治經濟學의 主要문제이다」

리카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쏟은 것은 分配의 正義라든가 勞動者의 貧困에 대한 配慮때문이 아니었다. 당시에 人口論을 가지고 勞動者의 生活改善을 위한 모든 배려를 공격하여 한 勞動運動家에 의해 사탄이라고 지탄받았던 맬더스 (T.R. Malthus)와는 달리 리카도는 勞動者의 貧困과 失業問題 등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으나 그도 역시 맬더스의 人口法則을 인정하고 實質賃金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입각한 賃金理論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리카도는 地主와 資本家 사이의 分配, 즉 地代와 利潤의 갈등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리카도는 分配問題의 단기적 변동보다도 장기적으로 人口가 증가하고 資本蓄積이 이루어지면서 穀價가 上昇할 때에 賃金, 利潤 및 地代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며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勞動價値說을 도입한 것이다. 모든 商品의 價値는 投下勞動量에 의해 결정되는데 穀物은 人口增加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며, 그 결과 나쁜 조건의 土地에 경작을 해야하며 여기서 같은 穀物을 生産하려면 投下勞動量이 더 많아야 하므로 差額地代가 형성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리카도의 經濟는 市場經濟에서 人口와 資本이 成長하는 資本主義이다. 그러나 이러한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을 아직도 이룩하지 못한 低開發國 (LDCs) 의 1980 년대의 관심사는 과연 生産物 分配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成長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은 두말할 것없이 成長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競爭과 統制 (Competition versus Control) 의 그 어느 것이 經濟成

長에 더욱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크라우스(M.B. Krauss)가 지적하고 있듯이 2차대전후 分斷된 3개의 地域에 있어, 1978년 현재 1人當 GNP가 韓國은 1,223 달러인데 비해 北韓은 555 달러이며, 西獨은 10,444 달러인데 東獨은 4,721 달러, 臺灣은 1,488 달러인데 中共은 443 달러로써 2次大戰以後 33년간의 경제발전의 결과는 資本主義經濟가 社會主義經濟보다 우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여기서 아직도 後進國인 나라들 또는 미국과 소련의 그 어느 영향력도 받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에서 第3世界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그 어느 것이 經濟發展에 있어서 현실적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크라우스에 의하면 「몇몇 第3世界の 나라들은 극도의 貧富의 對立과 싸우기 위하여 經濟發展에 앞서서 먼저 福祉國家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福祉國家에 앞서 經濟的 混亂과 政治的 暴力과 軍事的 獨裁를 초래하게 되었다」¹⁶⁾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코스타리카(Costarica), 우루과이(Uruguay), 엘살바도르(Elsalvador), 가나(Ghana) 등의 일부 中南美國家들이다. 이들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 理由는 經濟發展보다도 貧富의 대립을 문제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한층 설득력에 있어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經濟成長이 貧富의 격차를 확대하여 貧困을

15) M.B. Krauss, Development without Aid: Growth, Poverty and Government, McGraw-Hill Book Co., 1983, p.6.

16) 前掲書, p.23.

타과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1960~70 년대에 브라질은 10 %이상의 經濟成長을 기록하였으나 左傾知識人들은 이 경제성장이 더 큰 不均衡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로써 예일大學의 피쉬로우 (Albert Fishlow) 는 브라질의 經濟成長이 所得不均衡을 惡化시켰다고 지적하였고¹⁷⁾ 사무엘슨 (P.A. Samuelson) 의 「경제학」에서도 세계은행에 의하면 1970 년대에 브라질의 實質經濟成長은 놀라운 것이었으나, 최저 20 %의 人口는 전 소득의 2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최고 20 %의 人口가 전소득의 67 %를 차지하는 엄청난 不平等을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⁸⁾

그러나 개리 S. 필드 (Gary S. Fields) 에 의하면 로렌츠曲線은 상대적인 累積構成比에 의한 不平等도를 나타낼 뿐이며 지니의 指數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不平等도를 표시하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貧困階層의 絶對的 所得水準에 대한 分析을 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¹⁹⁾

- (1) 전체의 所得分配는 實質所得에 있어 전계층에 有益하게 變化되었다.
- (2) 貧困線 (the poverty line) 以下の 經濟活動人口는 아주 적은

17) Albert Fishlow, "Brazilia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pp.62, 399.

18) P.A. Samuelson, Economics, 10 ed., p.816.

19) Gary S. Fields, "Who benefite from Economic Development? - A Reexamination of Brazilian Growth in the 1960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7, pp.570~82.

數가 감소되었으나 比率로는 높은 所得水準이 貧困層에 남아 있다.

- (3) 貧困線以下の 所得增加率이 貧困線에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컸고, 2배 또는 그 이상이나 될 것이다.
- (4) 貧困層과 非貧困層의 相對的 所得隔差는 비율로는 감소되었으나 絶對額으로는 擴大되었다.
- (5) 10년 동안에 거의 모든 人口의 所得水準을 貧困線以上으로 이 동시켰다. 같은 유형의 변화가 미국에서도 관찰되었고 그것은 한층 平等한 社會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 (6) 브라질의 貧困罅 (the poverty gap)은 1960년과 70년의 사이에 41%나 감소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비율이 감소되었다.²⁰⁾

필드의 分析은 브라질에 있어 經濟成長이 貧困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非貧困層에 비하여 有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高度成長이 상대적으로 貧富의 격차를 擴大시키고 分配의 不平等을 초래한다고 하는 종래의 統計方式에 의한 分析에 불구하고, 貧困階層을 감소시키고 貧困을 탈피하는 길은 高度成長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크라우쓰의 分析에 따르면 經濟成長은 개인의 所得을 통하여 貧困을 탈피하게 할 뿐 아니라 公共消費 (public consumption), 예

20) 前掲論文, pp.577~80.

천대 公共住宅, 大衆保健, 教育 등에 있어서도 급속한 증가를 통해 貧困을 탈피하게 한다. 그는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아이보리코스트 등 4 개국은 民間部門指向의 經濟임에도 불구하고 公共部門指向의 經濟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 가나, 차드, 자이레등보다 國內總生産의 成長率이 높기 때문에 公共消費의 증가율도 높다는 사실을 例示하였다.²¹⁾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貧困의 탈피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成長이

<表 1> GDP 및 公共消費의 年增加率

	GDP		公共消費	
	1960~70	1970~79	1960~70	1970~79
홍콩	10.0	9.4	8.6	9.3
싱가폴	8.8	8.4	12.6	6.4
韓國	8.6	10.3	5.5	8.7
아이보리코스트	8.0	6.7	11.8	10.0
印度	3.4	3.4	-1.5	4.5
가나	2.1	-0.1	8.5	-2.2
차드	0.5	-0.2	4.4	-1.7
자이레	3.6	-0.7	8.5	-2.2

資料 :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World Bank, 1981.

21) Melvyn B. Krauss, 前掲書, p.42.

며 分配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經濟成長의 歷史는 1962년부터 시작하여 22년에 불과하며 가장 빨리 시작한 先進國을 포함해도 重商主義以後 現代資本主義에 이르기까지 수백년의 歷史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수천년동안 모든 哲學과 宗教와 思想이 成長을 경계하고 分配의 正義를 주장했으며 富의 축적과 巨大化를 비판해왔다. 고대 그리스 哲學, 기독교, 불교, 유교 등이 모두 그러했고 共產主義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宗教改革者들의 영향을 받은 新教徒는 資本主義의 발전과 함께 成長主義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유럽인들의 經濟發展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資本主義는 成長主義와 함께 발전하였고 非유럽人社會에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나 아시아에서는 日本人들이 이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셈이다.

2차대전후 新興工業國 (NICs)인 韓國, 自由中國,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成長主義를 받아들였으나 共產主義國家와 第3世界의 대부분은 이에 排他的이었다. 成長主義에 배타적인 첫째의 이유는 經濟成長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住民을 統制하는 政治構造를 갖고있는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中共이 經濟成長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實用主義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北韓에 있어서도 開放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 南北韓의 所得比較

지난 9월 11일 워싱턴 포스트紙는 北韓의 對西方外國資本을 유치하기 위한 合營法 制定을 보도하면서 北韓社會의 市場의 不確實性, 北韓政府에 대한 不信, 70년대이후의 外債償還 不履行등의 여러 요인을 들면서 결국은 外資의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은바 있다.

南北韓의 經濟構造를 비교할 때, 分斷 당시에는 北韓이 韓半島 工業施設의 90%를 보유하고 地下資源도 韓國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立地條件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對外開放的 工業化政策을 꾸준히 추진하여 先進工業化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은 金日成의 排他的 唯一思想으로 이른바 自力更生이라는 철저하게 폐쇄된 아우타르키 經濟體制를 고수함으로써 南北韓의 經濟發展의 격차가 되돌릴 수 없을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 현재 國民總生産은 우리가 753억달러인데 北韓은 145억달러로 5.2對1이며 1人當GNP는 韓國이 1,884달러인데 반해 北韓은 765달러로 2.5對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國土面積은 北韓이 韓半島의 55%인 반면, 人口는 韓國이 2.1배를 부양하면서도 1人當GNP가 2.5배나 되며, 특히 광산물이 北韓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工業生産에 있어 현저하게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은 北韓의 經濟가 그만큼 경직적인데 비해 韓國은 對外開放을 통해 北韓의 17배가 넘는 貿易規模에 이르고 있는데에 큰

<表 2>

南北韓 主要經濟指標 ('83年)

	單 位	韓 國 (A)	北 韓 (B)	$\frac{A}{B}$
面 積	km	981	122,370	
人 口	萬 名	3,995	1,890	2.1
G N P	億달리	753	145	5.2
1人當 GNP	달 리	1,884	765	2.5
輸 出	億달리	244	14	17.5
輸 入	"	262	16	16.4
發 電 設 備	萬 kw	1,312	574	2.3
粗 鋼 生 產	萬 噸	1,404	403	3.3
自 動 車	千 臺	337	15	22.4
造 船	萬 噸	400	21	19.0
TV 受 像 機	萬 臺	855	15	57.0
織 維	萬 噸	127	13	9.7
織 物	億 m	59.3	6	9.9
신 밭	萬 足	305	10	7.6
쌀	萬 噸	540	212	2.5
漁 獲 量	"	228	149	1.5
水 產 物 生 產 量	"	279	207	1.3
石 炭 生 產 量	"	1,986	3,500	0.6

資料：國土統一院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北韓의 工業化政策의 목표는 社會主義工業化過程을 추진하는데 있으며 이는 그들의 표현을 따르면 機械別 大工業을 발전시켜 高水準의 生産力을 발휘케하여 植民地 상태로부터 社會主義로 이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北韓은 이와 같은 社會主義 工業化過程에서 시종일관 自立性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工業化政策은 첫째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輕工業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둘째로 自力更生原則을 견지하여 人民經濟 內部的 모든 동원가능한 자원을 동원하고 세째로 社會主義工業化를 빠른 템포로 추진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1977년 12월 最高人民會議 第1次會議에서 채택된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촉진하고 社會主義經濟 토대를 다시 강화하고 住民生活을 向上시킨다」고 표현하였다.²²⁾

여기서 北韓의 工業化政策이 重工業에 우선하고 있음은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法則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軍需産業과 깊이 연결되어 이는 그들 경제구조에 무리한 부담이 되고 있다. 北韓은 GNP의 24%를 軍事費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적지않게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産業政策은 韓國이 市場經濟를 중심으로 한 消

22) 金日成著作選集, 제 7권, 외국문출판사, p.438.

費財工業을 발전시키고 開放體制에 力點을 두어 輸出産業을 발전시킴으로써 生産과 輸出을 擴大시켜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北韓에서는 中央政權의 統一的인 지도아래 計劃化의 單一性을 보장하고 고도의 計劃性과 균형성을 갖는 計劃化의 체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가 추진되어 왔다. 計劃의 一元化는 北韓 全域을 망라하고 있는 計劃部署가 하나의 國家計劃委員會의 統一的인 지도를 통해 單一性을 확보함을 뜻하며 計劃의 細部化는 經濟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획과 지도를 하는 계획화의 방법이다. 계획의 細部化의 특징은 各工場, 各企業所의 經營 활동을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시키고 經營活動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밀하게 계획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는 각각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計劃經濟가 市場經濟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北韓의 計劃經濟는 韓國의 市場經濟에 비하여 그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는 첫째 計劃當局者가 全知全能한 神이 아니기 때문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經濟規模가 적고 産業구조가 농사와 군수産業을 중심한 중공업 등 명확한 우선 목표를 두고 생산을 할 때에는 목표관리가 가능할 것이나 모든 國民에게 필요한 消費財와 外國에 輸出할 商品을 생산하는데에는 計劃當局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經濟規模가 커지고 産業구조가 복잡하며 우선순위를 정

할 수 없는 여러가지 生産物을 만드는데에는 부득이 分權的인 市場價格管理方式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딜레머일 것이다.

또한 計劃當局의 경제발전의 목표가 住民들의 福祉를 증대시키는 平和的인 産業보다도 赤化統一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서는 世界의 赤化를 목표로 하는 武力과 팽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政治 우선의 經濟運營을 지양할 수 없다는 限界性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共產主義의 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經濟가 치루어야 할 代價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共產主義國家가 資本主義國家에게 門戶를 개방하고 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市場機能 등 일부 자본주의의 제도를 吸收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限界가 있다. 만일 그러한 限界가 없다면, 資本主義化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中共의 改革이 매우 급속하고 또한 인상적이며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지만 한편 그들의 改革에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최근 中共訪問을 마친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進歩가 오랫동안 계속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體制를 개방한다는 사실은 권력과 책임의 분산화를 뜻하며, 그것은 集權化된 정치체제의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아마도 다시 체제를 폐쇄하게 될 것이다」²³⁾ 이와 같은 비관론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경제개방과 경제

23) Robert F. Dernberger, 前掲論文, The China Business Review, 前掲號.

발전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개혁에 대해서 그것이 지난 5년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일부 관료들의 저항 등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改革過程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노우튼(B. Naughton)과 같이 개혁의 장래에 대해 낙관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²⁴⁾ 그것은 한편으로 中共의 文化的 背景이 毛澤東思想과 일치할 수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동안의 文化革命期間에 中共은 經濟發展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社會文化的인 갈등도 있었다고 믿어지며, 鄧小平의 實用主義를 필요로 하는 社會的 背景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中共指導者들은 구체제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뿐 아니라 共產黨의 能力에 대한 大衆의 信賴를 얻기 위하여서도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의 北韓社會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스탈린의 教條主義보다도 더욱 강력한 金日成의 唯一思想과 世襲政治의 理念이 과연 經濟發展과 北韓住民의 文化的 背景을 바탕으로 강력한 信賴를 얻을 수 있는가는 지극히 의문되는 것이다.

北韓經濟도 1980년대부터는 量的生産段階로부터 質的인 經濟構造의 전환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東歐의 先進社會主義國家와 같이 自己制禦機構 (self - control mechanism)인 市場價格機能을 마련하지

24) Barry Naughton, 前掲書.

못하면 人民經濟를 運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消費類型이 生活必需品充足에서 生活便宜品充足과 나아가서는 사치품충족단계로 고도화되고, 物質的 충족단계에서 서비스충족단계로 변천되는 것은 社會主義國家에서도 先進化的 단계로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유형의 변화는 生産의 유형을 변화시키게 되며 단순 노동집약적 생산단계로부터 資本과 技術 知識集約的인 생산단계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對外先進工業國과의 交流의 확대를 또한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다.

北韓은 종래의 經濟運用方式을 개혁하지 않으면 經濟成長의 둔화, 經濟效率의 저하, 그밖에 여러가지 經濟的 困難을 타개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經濟는 外面的인 量産體制로부터 內面的인 質産體制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生産의 質을 높이기 위한 資本 및 技術의 도입과 質的生産에 대한 인센티브(代價) 制度의 도입 등 生産에 있어서의 개혁이 따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는 비기술노동자의 사상자극방식으로부터 技術專門家의 物的刺戟方式으로 전환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勞動集約的인 生活必需品充足段階로부터 資本技術集約的인 生活便宜品充足段階로 이행하여 集權的인 計劃經濟로부터 分權的인 市場價格機構를 도입하여야 한다. 國民들이 필요로 하며 희망하는 需要指向의 生産과 企業經營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한 성과 임금, 상여금 및 利潤制를 도입하여 經濟的인 效率性を 추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이 최근 中共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다.

세계 自力更生이라는 폐쇄적인 經濟運營을 지양하여 開放經濟로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 中共이 놀랄만큼 급속도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은 다 아는 일이며 北韓에서도 최근 合營法의 制定과 特定開放地域의 선정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資本導入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적인 개방보다도 실질적으로 消費生活에 대한 자율화 개방을 통해 需要指向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하여야 한다.

네째로 위와 같은 經濟的 效率性和 對外開放의 추구를 위하여는 궁극에 있어 政治·軍事 위주의 經濟運營으로부터 國民福祉를 목표로 하는 본래의 經濟目標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權力者 中心의 정치 및 군사우선정책에 따라 國民의 消費生活을 극도로 억제하여 왔으나 國民生活의 向上을 위하여 消費者主權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生活便宜를 선택할 수 있는 消費者 選擇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北韓經濟는 비전문가의 혁명세대로부터 전문가의 기능자세대로 바뀌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한 社會主義의 先進工業國이 될 수 없을 것이다. 北韓經濟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社會主義體制이기 때문에 갖는 成長制約要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東歐圈이나 기타 社會主義國家에서 볼 수 없는 한층 더 독재적인 唯一體制가 經濟發展을 抑壓하고 있는 것이다.

다. 勞動과 賃金所得

社會主義 經濟學에서 勞動은 唯一한 價値의 源천이며, 정치체제도 勞動者集團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勞動黨이 지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勞動者는 자신의 대표기구인 黨의 支配와 命令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독재체제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資本主義體制와 달리 生産手段의 私有가 부정되는 社會主義體制下에서 勞動은 商品으로 매매되지 않으므로 자본에 종속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勞動者는 計劃當局이 指示하는데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經濟的 報酬 또는 대가를 받고 勞動力을 제공하는 것을 資本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市場價格에 의한 代價를 받지 못하고 計劃當局에 의하여 강요당하는 勞動을 勞動者를 위한 勞動者의 독재(프롤레타리아)라고 合理化하고 있는 것이 社會主義이다.

또한 社會主義에서 勞動에 대한 報酬는 勞動의 量과 質에 따른 分配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賃金은 사실상 勞動에 대한 보수이지만 計劃當局이 이를 결정하여 배분하는 分配所得으로 규정되고, 資本의 利子, 企業의 利潤 등에 다른 分配分이 없기 때문에 賃金은 分配所得의 전부이다. 國家는 1년간 生産된 社會的總生産物(Gross Social Products) 중에서 그 생산에 소모된 生産手段의 보상을 공제한 國民所得의 일부를 勞動者들에게 그들의 個人的消費를 充당하기 위하여 配定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消費水準은 거의 모두가 勞動의 量과 質의 보수

로 평가되는 賃金體系에 의하여 결정되는 國民所得의 分配分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國民所得의 分配原則은 賃金體系와 勞動定量에 기반을 두는데, 숙련노동과 未熟練勞動, 輕勞動과 重勞動, 産業의 特性, 勞動條件의 차이 등에 따라 差等を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賃金體系는 生産物의 需要에 派生的으로 결정되는 生産要素의 需要에 賃金이 따르는 資本主義經濟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古典學派의 勞動價値說에 있어서도 예컨대 사냥꾼이 하루에 사슴 2 마리 또는 수달피 1 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사슴 2 마리를 잡기 위하여는 수달피 1 마리를 잡는 시간을 포기하며, 반대로 수달피 1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슴 2 마리를 잡는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사슴 2 마리와 수달피 1 마리의 價格이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勞動의 量이 상대적으로 生産物의 價格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사슴 2 마리보다 수달피 1 마리를 원치 않는다면, 사냥꾼이 수달피를 잡기 위해 하루종일 뛰어다닐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勞動의 量을 消費者의 需要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社會主義에서는 計劃當局이 生産物의 수요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勞動의 投入量으로 生産物의 價格을 결정하고 또한 賃金體系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計劃當局이 결정한 生産物의 수요가 消費者가 원하는 것 以上으로 많거나, 반대로 적다면, 그것은 모두 무시되고 맡게 되는 셈이다.

北韓에 있어 賃金制度는 1946년 8월 21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命
令 46號에 의하여 平均賃金 計算規定을 제정 공포한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후 産業施設과 生産技術의 조건의 변화됨에 따라 特殊機能
者에 대한 우대 및 勞動條件의 質과 量에 따라 賃金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소나마 勞動意慾의 제고를 기하려고 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 불구하고 勞動의 質이 현저하게 多
樣化 되어야 할 技術集約的 産業을 高度로 발전시키기에는 計劃當
局의 평가에 의한 賃金體系가 정밀하게 타당성을 갖출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北韓에서 실시하고 있는 賃金制度는 事務員에 대해서는 固
定月給制이나 生産職 근로자에게는 都給制를 실시하여 成果給制度를
병행하고 있다. 都給賃金制는 그들이 政治的 道德的 刺戟에 의한 生
産性 向上의 限界를 인식하고 勞動強化를 위하여 실시된 것이며 이
는 社會主義的 分配로써의 勞賃을 통한 平等을 강조하고 선전하는
내용과 사실상 다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都給制는 오히
려 資本主義制度에 비하여서 한층 市場經濟的 要因이 포함되면서도
또한 勞動者에게 제공된 資本裝備의 차에 따라 발생하는 都給의 격
차를 어떻게 合理的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그들은 社會主義의 勞動制度는 生活의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
이 아니라, 物質的 刺戟을 위하여 보다 많은 勞動에는 보다 많은
分配, 높은 質의 勞動에는 낮은 質의 勞動보다 많은 分配가 행하

여집으로써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고, 勞動者 個人的 利益과 社會全體의 이익을 조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單位時間의 生産量의 차이와 또는 質的인 차이가 그 生産手段 즉 1人當裝備率의 차이와 生産要素의 質的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勤勞者의 賃金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市場機能의 도움이 없이 合理的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로써 北韓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970년 11월 제 5차 全黨大會에서 地域間, 業種間 勞動隔差로 인한 社會的 不滿을 해소하기 위하여 3大技術革命을 6個年計劃의 중심과제로 제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工業勞動과 農業勞動의 격차해소, 重勞動과 輕勞動의 격차해소, 과중한 家事로부터 婦女子를 해방시킨다는 것이 3大技術革命의 내용이며, 이것은 技術集約的인 高級生産物의 생산과 勞動生産性を 현저히 向上시키기 위한 技術革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勞動條件과 賃金の 不公平한 配分에 따른 不滿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市場機能이 도입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지극히 단순한 문제라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이는 農村勞動者가 都市에 비하여 惡條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動力의 대가에 대한 分配條件도 都市보다 못하다는데서 발생하는 農村住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技術革命이란 名稱으로 呼稱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1973년 3大革命小組를 조직하여 協同農場과 企業所에 감시원을 파견 思想革命, 文化革命, 技術革命을 동시에 黨的次元에서 직접 통제 관리함으로써 勞動強化를 극대화한 것이다.

특히 이때(1973년)부터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全體勞動者의 忠誠心을 반영한다는 名分과 함께 勞動定量을 72년에 비해 평균 122.4%나 올려 全體住民들을 文字 그대로 勞動強化로 묶어두었다.²⁵⁾

최근 1978년에 들어 社會主義勞動法을 제정하여 1946년이래의 勞動法體系를 개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8년 4월 6일 제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이 法은 勞動의 社會的 公共性을 명백히 규정하여 勤勞者들의 勞動 및 生産活動에 대한 參與度를 向上시키는데 主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鑛業에 대한 超過達成을 法的으로 固定, 의무화시킴으로써 勞動者들의 獻身的 노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中共에서 農業生産物의 超過達成分을 私的으로 市場에 處分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正反對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北韓에 있어서는 勞動 및 賃金政策의 硬直化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社會主義勞動法은 勞動動員計劃을 수립함으로써 종래 勞動行政의 난맥상을 지양하고 강력한 勞動力 動員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立法은 독재국가에서도 戰時的 勞動力 動員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76년에는 北韓의 政權史上 최초로 全國 勞動行政일꾼大會를 개최하여 勞動力의 適在適所의 배치와 固着化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生産의 極大化를 꾀하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

2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956.

라 人口移動을 극히 억제시키고 있다.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 各種 勤勞團體의 會議를 자주 개최하여 社會主義競爭運動을 전개하고 生産課題의 目標達成을 위한 政治的運動을 강화하는 등 勤勞者들의 團體運動, 組織整備등을 통한 勞動力動員의 極大化와 生産性 提高에 集中努力하고 있다. 최근 1981~2년에 각종 社會主義競爭運動과 忠誠의 革新運動 등이 勞動力 強化를 통한 生産性 向上에 注力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北韓의 勞働法의 制度的 變化에 있어 가일층 資本主義의 要素를 배격하고 勞働의 公共性和 社會性을 강조하여 勤勞者들의 적극적인 參與를 강요하고 課業에 대한 超過達成을 法的으로 固定化, 義務化하였음은 크게 주목되어야 할 사실이다.

北韓의 勞働 및 賃金制度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資本主義 思想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勞働強化는 의무화하면서 賃金은 最低生活水準을 유지하는데 묶어두어야 하는 점이다. 賃金所得의 일부를 貯蓄하게 되면 資本主義的 精神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最低 賃金制度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예로써 勞働者 夫婦의 賃金合計가 勞働定量에 따라 100 원일 경우 그대로 두면 남기 때문에 實質收入을 60~70 원으로 묶고 勞働強化에 의하여 超過達成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名目賃金과 實質賃金の 差異를 擴大再生産의 원천으로 하는 勞賃政策이 北韓의 政策基調가 된다. 이것은 理論上 社會的 貯蓄의 실현을 위해 實質賃金を 적게 받도록 하는 셈이며, 이와 같이 名目賃金과 實質賃金の 罅이 크기 때문에 勞働者들의 否

定的인 態度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勞働者 相互間의 賃金隔差와 특히 特權層과의 生活水準 隔
差에 대한 不滿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

4. 住民生活과 社會保障

가. 消費財生産과 生活水準

오늘날 세계에 177 개의 나라가 있으며, 그 형편들은 각기 다르나, 분명히 貧國과 富國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한 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 貧國의 못 사는 사람과 富國의 못 사는 사람은 그 기준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을 검토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자면, 우선 한 나라의 貧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와 나라의 貧富의 차이, 또는 한 나라의 貧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經濟學者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不幸히도 一律적으로 說得力있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난한 理由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理由가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이유로써 資源이 不足하다든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貧困의 理由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콩고는 벨기에 보다 資源이 풍부하지만 가난하며, 이탈리아의 1人當 국민소득이 이디오피아의 30 배가 되는 것은 이디오피아의 국민이 30 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즉, 南北韓의 1人當GNP가 1960년대에는 北韓이 높았으나, 70년대 중반부터 韓國이 더 높아졌으며, 1983年 現在 2 배가 넘는

데, 그 원인은 北韓의 資源이 不足하거나 北韓의 住民이 게으른 탓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北韓에 있어서 住民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나 國民總生産의 증가에 필요한 資本財가 부족하며 또한 國民總生産의 많은 부분을 戰力增強을 위한 군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GNP에 대한 國防費의 비중은 약 6%인데 반하여 北韓은 20%나 되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韓國은 投資財源의 약 20%를 海外貯蓄에 의존하여 投資를 확대시켰으나 北韓에 있어서는 개발초기에는 自給自足の 名分으로 外資導入을 하지 않았으며 70年代에는 얼마안되는 外資導入에 대해서도 償還能力의 부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등 그로인한 對外信用의 부족으로 外資導入이 부진하여 결국 投資財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어서 計劃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특히 住民生活에 대해서는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業을 能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物質的 準備를 先次的으로 도모하면서 요즘 모든 勞動者들의 生活를 다 같이 고르게 높여야 한다」고 1970년 11월 제 5차 全黨大會에서 채택한 6개년계획에서 언급하였다. 이처럼 赤化統一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며 革命的 大事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物質的 準備가 先次的인 것이다. 6개년계획을 진행시킨 1970년대에 北韓은 國民所得을 1.8배로 높이고, 이에 따라 勞動者事務員들의 月平均勞賃水準을 70년도의 70원에서 76년에는 90원으로, 農家の 現金收入을 76년에 年間 1,800원으로 높

일 것을 計劃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6개년에 1.8배의 國民所得의 提高를 위해 年間 10.3%를 成長을 해야 하나, 74년 石油波動과 對外負債에 대한 支給不履行으로 인한 外資導入의 차질과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計劃을 달성하지 못하여 77년을 調整期間으로 한 뒤, 78년부터 第2次 7個年計劃을 시작하여 84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위의 所得增加 및 賃金引上計劃은 實現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10월 제6차전당대회에서 北韓은 「社會主義制度的 본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生活樣式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輕工業發展과 人民消費品 生産에 一大轉換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표현은 그동안 전쟁준비를 위한 偏重政策에 따라 住民生活이 어려웠던 것을 合理化하고 權力世襲體制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最低生活에 시달리는 住民들의 不滿을 다 소나마 해소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1980년 6차 전당대회때부터 輕工業發展에 주력하는 인상을 부각시켰으나, 아직도 對外技術交流가 없는 北韓의 輕工業의 水準은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紡績, 化學纖維등 輕工業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製品만 中央生産工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生活必需品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郡單位 小規模의 地方産業工場에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施設과 資本, 技術의 영세성 및 낙후성으로 제품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質적으로 매우 조잡하여 住民生活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北韓의 生活水準은 모든 勞動者가 참여하는 勞動의 量과 質, 즉 勞動定量에 의한 分配(配給)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정해진다. 특히 「여유시간을 주지않고 배불리 먹이지 않는 것이 住民統制의 관건」이라는 레닌主義의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衣食住生活를 통제할 뿐아니라 貯蓄의 여유를 주게 되면 資本主義의 부르조아사상이 싹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勞動定量이 저축의 여유를 줄만큼일 경우에는 實質賃金을 이 보다도 적게 분배함으로써 조금도 여유가 없는 住民生活이 강요되는 것이다.

(1) 食糧生産과 配給制度

北韓의 農業은 國營農牧場과 協同農場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集團農業體制에 있어 소련이나 中共과 같이 農民의 成就動機를 전혀 허용치 않기 때문에 必要한 食糧生産에 실패하고 있다. 최근 中共이 農民들에게 成就動機를 부여하기 위한 分權化의 경향이 우리에게 주목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아직까지 成就動機는 전혀 주어지지 않으며 營農技術의 낙후, 地力의 弱化, 기타 自然災害 등으로 農業生産의 증가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 北韓은 1980년 현재 農耕地面積이 210만정보로 耕地率이 16.9%에 불과하여 우리의 22%보다 훨씬 낮은 水準이다. 특히 田畝의 比率은 69.3%對 30.2%로써 우리는 水稻作의 比重이 높은 데 반하여 北韓은 田作爲主의 作物栽培를 하고 있다.²⁷⁾

27)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p.14.

韓國은 1981년도에 쌀 506 만톤을 비롯하여 穀物이 647 만톤, 薯類 46 만톤인데 糧穀導入量이 722 만톤으로써 穀物의 自給度가 49 %에 불과하다. 그리고 北韓의 경우 穀物 510 만톤과 薯類 27 만톤을 포함하여 전체의 食糧生産이 537 만톤으로 人口를 감안하더라도 食糧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食糧의 配給制를 통하여 食糧의 自給을 이룩하려고 힘쓰고 있으나 소련등지로부터 小麥등 잡곡을 50 만톤정도 도입하고 있어 自給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食糧의 自給率이 90 % 정도는 되어 우리보다 높으나 1人當食糧消費量이 훨씬 低水準이다.

食糧配給의 基準은 一般勞動者와 大學生은 1日 600 g, 黨 및 國家機關 幹部, 重勞動者, 一般軍人은 700g 으로 되어 一般勞動者와 黨 幹部등이 차별적이며 一般住民의 경우 대체로 15일분중 2일분정도의 不足現象을 보이고 있는 데, 지난 1973년부터는 基準配給量에서 備蓄米라는 명목으로 100g을 減量配給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980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金日成은 女性들의 社會主義建設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人民生活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현대시설의 輕工業工場을 건설하여 食料品 및 日用品 生産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食料品生産의 독려는 食糧配給의 감량에 따른 食生活難의 해소를 위하여 한층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食料品の 大規模工場이 몇개 설립되었으나 대부분의 조미료 통조림등 副食物生産은 中小規模의 食料品工場에서 담당하고 있다. 北韓

은 최근에 食料品商店에 自體加工班을 운영하는 동시에 食料品 家
內作業班을 늘리고 질 높은 食料品을 住民에게 供給하고 있다고 선
전하고 있으나 食料品도 配給形態로 공급되고 있으며 供給量이 적
어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北韓의 食生活에 있어 主食以外的 副食은 主食과 달리 高價로 공
급되는 데, 부족한 主食을 副食으로 보충해야 하므로 副食도 食生
活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副食의 配給形態는 된장,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은 공급카드에 의거하여 구입하고 무우, 배추, 조미
료는 직장에서 배급받으며 肉類와 魚類는 공동 구입하게 되는 데,
대체로 魚類는 月2回, 肉類는 特別한 날에 한하여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肉類는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고급간부, 군간부, 고
급당원, 국가대표급 체육선수단, 국영식당, 고급상점 등에 우선 공급되
며 일반주민에게는 공휴일이나 경축일에 한하여 직장에서부터 공급
받는다.

北韓에서도 닭이나 달걀 등의 판매는 國營商店이나 農民市場에서 자
유판매되고 있으며, 농민시장에서는 국가지정가격이 아닌 自由價格으
로 거래되기도 한다.

農村住民에게는 세대당 약 30명 정도를 할당해 주어 채소나 감
자, 옥수수 등의 잡곡을 생산케하여 보충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일반명절과 특수명절에 全住民과 特殊職種從事者들에게
특별배급을 해준다. 이 특별배급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시의 供
給事情에 따라 증감된다.

이와같은 特別配給은 平常時에 일반주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肉類, 魚類등을 1년에 3~5회 더 배급하여 住民들의 不滿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消費財生産과 配給制度

이미 여러차례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에서 경제개발 초기에는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輕工業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므로 衣類를 비롯한 消費財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나 1980년 6차 대회에서 消費財工業의 발전을 다짐하였으며 이 때에 金日成은 15억 m 의 직물고지를 점령할 것을 제시하면서 방직공장과 편직물 공장을 건설 확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의 織物生産量은 약 6억 m 인데, 이 중에서 軍用, 公共用, 工業用 및 輸出用으로 쓴 나머지가 住民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1人當 配給量은 年間 約 30 m 에 달하고 있다.

北韓의 衣生活에 있어서는 주로 作業服과 內衣는 염가로 배급되고 있으나 外出用, 紳士服은 고위층이나 특수층 이외에는 입기가 어렵다. 價格도 비쌀뿐 아니라 高級衣類의 구입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住民중 당원과 사무원등의 일반복장은 男子의 경우 人民服(테크복)이 유니폼화 되어 있고 女子는 주로 한복을 입었으나 在日 교포의 北送이 시작된 이후 양장이 늘어나고 있다. 의복의 생산은 南北對話가 있었던 70년대부터 프린트 무늬의 옷감과 색깔이 다양

화되었는데 織物의 質은 아직도 高級化되지 못하였으며 衣服의 선택이 美的 感覺보다 정치, 경제적 목적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織物生産量의 부족으로 인한 統制와 女性들의 社會主義 建設動員으로 作業服을 입는 시간이 많으며, 모든 成人과 軍인과 學生이 제복을 입어 多樣한 의복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外國人의 出入에 따른 자극을 받아 옷의 流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服裝의 美的 感覺을 추구하는 연구가 허용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衣服이 그 사람의 社會的 身分을 나타내므로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경례로써 예의를 갖추는 습성이 생겨났다고 한다. 衣服供給은 신분차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며, 중앙공급을 받는 특권층은 최고급 毛織을 입고, 최하위의 간부로 내려가면서 半毛織, 대마직 등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외투, 모자, 구두등의 장신구는 한층 더 명백하게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도록 되어 있으며 中央幹部, 道幹部, 市·郡幹部등의 신분이 그대로 식별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女性들의 衣類生活이 1970년대부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生活感情에 맞게 옷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여 多樣化되고 있으며, 「옷 전시회」, 「옷 품평회」등을 통해 복장의 조화를 배려하고 있다. 女性들의 의상에 있어 화려한 색상과 어느 정도의 노출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쾌하고 우아한 옷차림이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최근 北韓의 의상이 종래보다 밝고 간편해지고 있음은 좋은 일이나, 아직도 織物生産技術의 부족과 住民들의 구매력부족등의 제약으로 限界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의 日用品 消費財는 대부분 地方工業의 형태로 생산공급되고 있다. 이것은 수송난의 問題와 氣候에 따라 冬閉期의 노동력이용 등의 이유로 地方工業을 육성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消費財工業은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零細性을 면치 못하여 質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 어쨌든 北韓에서는 地方工業이 中央의 投資負擔을 경감시키고 住民들의 급박한 生活必需品의 需要를 충족시키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地方工業의 발전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地方의 自然資源과 대규모 中央工業企業所에서 나오는 副産物, 폐기물등과 農業生産物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여러가지 종류의 消費品生産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地方的 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추가적인 투자가 없이 단시일에 全郡衆的 運動으로 소비품 생산을 할 수 있다.

넷째, 工業이 도처에 골고루 분포되고 공업과 농업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는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北韓이 日用品의 生産을 地方工業의 형태로 分散시킨 것은 위와같은 이유에서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또한 규

모의 이익이 없어 生産性的 向上에 限界性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北韓의 地方工場은 식료품 534 개, 섬유류 647 개, 日用品 1,050 개, 기타 1,074 개로 조합 3,305 개나 되며 특히 輸出商品으로 地域別 特産物生産에 종사하고 있는 工場도 54 개로 확인되었으나, 앞으로 점차 증가될 추세에 있다.²⁸⁾

北韓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1980 년대에 들어 消費財工業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2 차 7 개년 계획 (1978 ~ 84) 의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消費財生産은 2.1 배, 예를들어 신발 1 억족, 종이 1.8 배, 합성수지 10 만톤과 地方工業의 生産額을 모두 2.4 배로 늘리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消費財工業에 주력하고 있는 강도를 알 수 있다. 최근 金日成은 매년 신년사에서 輕工業部門의 중요한 과업은 消費品生産을 늘리며, 그 質을 1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모든 生産潛在力을 총동원하여 日用品生産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1 년 현재 日用品生産工場은 950 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화공장 40 개, 피복공장 330 개, 가방공장을 포함한 수지제품공장 40 개, 목제품공장 120 개, 학용품과 사무용품공장 40 개, 화장품공장 50 개, 공예품공장 70 개, 시계·악기등 문화용품공장 60 개, 전기일용품 30 개, 일용품종합공장 45 개, 기타 잡화

28) 北韓總覽, pp.833 ~ 4.

공장 26개등이 분산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大多數의 工場들이 자체제작의 低性能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品質이 조잡하여 앞으로 施設과 기술, 原資材의 海外導入등으로 적극적인 품질제고를 추구하지 않으면 日用品工業의 발전은 물론이며 住民들의 수요에도 부응하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 住宅 및 社會間接資本과 住民生活

(1) 住宅供給과 住居水準

人口 1,800 만의 北韓이 4,000 만의 韓國에 비하여 食糧의 自給率이 높으며 住宅의 普及率도 높다고 말하여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食糧의 海外輸入率은 낮지만 그대신 住民들의 食生活이 韓國에 비하여 크게 低水準이며 住居水準도 더 좋지 못한 형편이라고 평가된다.

北韓은 6.25 동란중 약 60 만호가 파괴되어 住宅難에 직면하였으므로 休戰以後 住宅建設에 치중하여 1957 ~ 60 년의 5 개년계획기간에 40 만세대분의 都市住宅과 20 만세대분의 농촌주택을 건설하려 했으나 계획의 차질로 15 만 2 천세대분의 건설에 그치고 말았으며, 그 이후에도 1961 ~ 69 년에 120 만세대분의 목표에 80 만세대분의 실적과 70 ~ 77 년에 1 백만세대분의 목표에 88 만세대분의 실적을 올렸고, 1978 ~ 84 년에는 매년 20 ~ 30 만세대분의 목표를 세웠으나 그들의 발표로도 이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의 住宅普及率은 全住民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와 기술의 낙후성, 生活水準의 억제등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며 10명 내외의 小規模住宅이 대부분이다.

北韓의 住宅供給은 賃貸方法으로 배정함으로써 住宅所有에 의한 資本主義的 要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둔 계급사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의 住居水準은 社會的 階層에 따라 정해지며 住宅을 보고 그 사람의 地位를 알 수 있다.

住宅型은 號數로 구분되며, 特號, 4號, 3號, 2號, 1號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아파트인 2호 住宅은 방 1~2개와 마루방, 부엌 각각 1개의 10명내외로써 전체 가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의 住宅水準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당비서, 정치국위원, 정무원, 부장등의 단독 고급주택으로 되어있는 特別住宅은 매지 300~500평에 건평 200평의 호화주택에 경비병 1개분대와 간호장교 1명, 전용요리사 2명, 식모 2명, 운전수 2명, 경비병 1명이 배속되어 있다.

北韓의 住宅의 형태별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농촌주택, 工場舍宅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都市의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시멘트의 組立式公법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8.15 해방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個人財産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25 동란 이후에 건립된 住宅은 國家 및 公共團體所有이다. 이에 따라 個人所有의 舊屋은 매매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住居移轉의 自由가 없고 地方配置時에 거주할 住宅이 할당되기 때문에 住

宅의 매매가 거의 없고 따라서 私有財産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현실이다. 또한 건물의 수리와 관리를 國家의 주택관리사무소가 主管하고 있기 때문에 私的 所有의 住宅은 관리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실상 私有가 불가능하다.

北韓의 住宅普及率이 韓國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總世代數에 대한 住宅의 供給이 65%에 불과하므로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勞動者가 다른 직장으로 배치되면 적어도 2~3개월은 남의 집방 1칸에 임시로 거주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住宅의 크기가 家族數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고 身分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子女가 많은 庶民層은 방한칸의 적은 住宅에서 웅색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2) 社會間接資本과 生活便宜

北韓에 있어서 電力, 輸送, 通信등의 社會間接資本을 비교할 때 電力은 비교적 순조롭게 개발할 수 있으나 輸送에 있어서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에 직면되고 있다.

電力에 있어서 北韓은 비교적 풍부한 水資源을 배경으로 현재까지 水主從火의 電源供給體系를 유지하여 왔다. 1981년말 현재 總發電施設能力은 水力이 291만kw, 火力이 220만kw로 도합 511만kw이며 57對 43의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原子力發電所는 없다.

電力事情은 1960년대까지는 풍부한 편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經濟規模의 확대에 따라 電力需要가 계속 늘어나 차츰 심각한 電力難

에 직면하게 되고 2차 7개년계획이 시작된 1978년 이후에는 經濟發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만큼 電力難이 深化되었다.

이는 2차 7개년계획기간에 火力發電所의 발전능력을 높여 84년에는 火力發電의 비중을 68%로 높이는 電源開發計劃을 수립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水力에 비하여 資金과 人力 및 건설기간이 짧아 유리하며 石炭資源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11개의 水力과 3개의 火力發電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電力供給의 구성이 전환될 것이며 또한 電力難이 해소될 것이나, 최근 外貨事情이 극도로 나빠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조기완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電力部門보다도 輸送部門이 한층 더 애로가 크다. 마르크스의 理論에서 輸送은 생산과정의 한 요소로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産業生産의 증가에 맞추어 輸送의 발전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經濟運營에 크게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輸送問題가 심각하여 經濟計劃의 成敗의 관건으로 인식되었으며, 6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5년을 「輸送의 해」로 정하여 모든 相關公장과 全住民이 수송시설물 확장에 주력하게 했으며, 6개년계획이 끝난 뒤에도 輸送施設의 확장에 계속 힘써야 했다. 그리하여 2차 7개년계획기간에 鐵道 1.7배, 自動車 4배, 船舶 4.4배의 貨物增加를 예견하여 철도수송에서 집중수송비중을 60%, 전기철도수송비중을 87%로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集中輸送運營을 위해 주요 生産地와 消費地부근의 기존역을 집중 화물역으로 지정하여 대량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荷役 機械등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는 輸出이 많고 따라서 海運과 陸路를 연결짓는 自動車수송이 크게 발달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은 東西의 兩海岸을 연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海運發展의 제약으로 鐵道輸送力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특히 높은 山岳地帶를 철도에 의존하기 위해 電鐵化에 주력하였으며, 對中共 및 소련과의 鐵道連結에 의한 國境線도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鐵道가 중요수송수단이기 때문에 道路는 都市와 農村間의 必需品輸送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海運에 있어 對內航路는 東西海岸의 격리된 地理的 條件때문에 兩分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中·蘇와의 國境鐵道가 부설되어 있으므로 貿易貨物도 주로 鐵道에 의존되어 對外航路도 빈약한 형편상태로 일본, 중공, 소련에 국한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西方側과의 交易를 실시하여 東南亞, 中東, 아프리카에도 就航하고 있으나 定期航路는 없다.

航空은 民用航空이 아직까지 없고 空軍에서 조선민용항공국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다. 1974년부터 外交攻勢의 수단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제국과 航空協定체결을 서둘러 현재 34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北韓이 운영하고 있는 航空路線은 평양-北京과 평양-하바로브스크의 2개路線뿐이며, 國內線도 정기노선이 순안-청진간의 1개노선뿐이다.

北韓은 1970 년이후 수송난을 해결하기 위해 벨트콘베어, 삭도, 파이프라인을 수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3化輸送' 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의 日常生活에 通信手段의 발달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地球끝에서 일어나는 스포츠를 안방에서 볼 수 있고, 서로 通信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北韓에서는 보고 듣는 자유와 비밀이 보장되고 있지 못해 가장 큰 낙후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書信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마저 없는 北韓 住民들에게 黨과 機關의 선전물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으며 따라서 통신수단도 크게 이용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 通信은 신경망과 같은 것인데 폐쇄된 사회에서 통신의 역할은 가장 크게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電話器는 전혀 없으며 당과 기관의 고위층만이 가정용전화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도 자동전화가 아닌 중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私的인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중전화는 체신소, 백화점, 호텔등에 약간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北韓과 遞信協定을 맺은 나라는 東歐圈과 中東, 아프리카, 아시아의 20 개국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우편물취급은 해외공관들의 업무연락이외에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 社會化와 個人生活

(1) 社會化의 過程과 現實

北韓의 住民生活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GNP, 또는 經濟力등의 經濟的 要素외에 社會化를 들 수 있다. 이는 政治, 經濟, 思想, 文化生活등을 통털어서 가장 크게 個人生活을 지배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말하듯이 社會化(socialization)를 통해서 人間답게 된다.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成熟된 人間이 될 수 없으며 社會속에서 他人들과의 互相關係作用을 통해서 自己形成을 하는 것이다. 民主社會의 市民으로 형성되며 成就動機에 의하여 社會속에서 自己形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不完全한 存在로 出生한 人間이 그 社會의 正常的인 成員이 되는 것은 그 社會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價値와 行動規範들을 습득하고 반대로 그 社會에서 용납될 수 없는 價値와 行動樣式을 抑制함으로써 그 社會의 必要에 순응하여 그 社會의 發展에 參與함으로써 이루어진다.²⁹⁾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社會化過程(socialization process)에 대한 결론으로 새 世代는 그 社會의 文化를 계승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나,³⁰⁾ 한국(南北韓 포함)과 같이 變動이 컸던 社會에 있어

29) Stanley A. Reson, ed.,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1977.

30) David Easton and J.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McGraw-Hill, 1969.

서 새 世代가 이 既存文化를 수용하고 既存社會體制에 一體感을 갖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2次大戰後 韓國은 東西冷戰속에서 6.25 동란을 거쳐, 休戰以後 미국, 유럽, 日本등의 資本主義體制로 발전되면서, 60년대부터 급속한 工業化와 産業社會의 형성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變動속에서 새 世代인 靑少年層의 價値觀이나 生活樣式은 個人的 利己主義, 物質中心主義와 自己表現主義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반면 北韓에 있어서는 既存體制를 파괴하고 새로운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며 個人的 價値觀 및 行動規範과 生活全體를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社會主義化에 國家的 努力을 기울여왔다. 그것은 이른바 「革命的 人間」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幼年期로부터 家庭의 영향을 배제하고 劃一的인 計劃과 統制된 社會化過程을 통해서 기성 세대와는 전혀 다른 改造된 人間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南北韓의 住民이 經濟的으로 어느 측이 더 풍부한가 하는 것이 南北韓의 대결에 있어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住民들 個人이 그에게 주어진 社會化過程에 대해서 만족하며, 社會體制에 대해 一體感을 갖느냐에 의존된다고 볼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社會化過程에 대한 비교기준으로 金忠南교수는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³¹⁾

31) 金忠男, 南北韓靑少年의 社會化過程과 教育의 課題, 統一論叢, 1984, 4卷 1號, 國土統一院, pp.7 ~ 24, 특히 pp.10 ~ 11.

첫째는 巨視的 環境이 個人들에게 선택가능한 복수모형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開放과 閉鎖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本研究에서도 중요시하여 제일 먼저 검토한 바 있다. 韓國의 開放社會는 北韓의 閉鎖社會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그 동안 共產圈이 부분적으로 開放經濟를 이행하고 있는데 北韓은 앞으로 이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가 課題일 것으로 본다.

둘째로 政治體系(political system)가 社會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느냐, 다시말하면 一元主義的 統制下에 있느냐 아니면 多元的 性格을 가졌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政治關係라는 표현보다도 政治理念 또는 政治權力이 社會化에 대해 직접 간섭하여 一元化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한층 명백할 것이다. 閉鎖性이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위해 開放보다 閉鎖社會를 선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經濟發展過程에서 요구되는 開放化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나 政治와 社會의 一元化는 끝까지 不變要素로 작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결국 經濟는 開放된다해도 社會開放은 끝까지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政治社會의 一元化와 이를 위해 個人에게 多元化된 成就機會를 제공하지 않고 劃一的인 社會化를 위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며 이는 社會主義體制의 本質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社會化의 段階를 初期社會化, 靑少年社會化, 成年社會化로 구

분해 불때 全生涯에 걸쳐 連續性을 갖느냐, 斷絶的이나의 구분을 할 수 있다. 劃一的인 社會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連續性을 가지나, 自由主義社會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네째로 같은 時點에서 被社會化者(socializee)에게 社會化機關들이 서로 조화되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相互補強效果를 주느냐 반대로 서로 矛盾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갈등과 장애를 가져오느냐의 구분을 할 수 있다.

끝으로 社會化의 結果 個人들이 地域社會나 政治共同體에 얼마만큼 愛着心과 所續感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社會體制的 결론적인 평가문제에 속한다고 보겠다.

北韓社會는 두말할 것 없이 둘째의 내용인 金日成 唯一思想과 金日成·金正日의 權力繼承을 社會化過程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閉鎖主義가 經濟發展에 대한 障礙요인이 되기때문에 최근에 經濟開放의 과제를 놓고 社會化過程과의 妥協을 어떻게 수정해나가느냐 하는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歷史觀은 본질적으로 人類歷史를 階級투쟁의 過程으로 보고 프로레타리아의 獨裁를 名分으로 하여 獨裁國家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그것이 社會化過程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個人은 이러한 社會化過程에 順응해야 하며 여기서 獨裁가 合理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프로레타리아의 獨裁는 결국 金日成의 獨裁, 金日成의 偶

像化, 金日成 金正日의 獨裁의 繼承등이 프로레타리아獨裁者의 神格化로 變化되면서, 被社會化者에게는 이에 全폭적으로 順응해야 하는 社會化 過程이 강요되었다. 그것은 順응자와 비순응자의 구분을 위한 全住民에 대한 成分調査, 黨의 組織과 監視系統의 조직등이다.

北韓은 이러한 成分調査에 따라 70 년대에 3大階級, 51 개 階層으로 被社會化者를 細分하고 최근에도 1980 년 1 월 「政治的 不純分子에 대한 教養事業을 강화하라」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公民證檢閱事業을 강화하고 각 기관, 工場, 企業 別로 危險對象者를 揀출하여 함경도와 양강도등 邊方地域으로 강제이주시켰으며, 또한 越北者(以南出身), 北送僑胞, 外國歸化人 등은 위에서도 13 개층으로 분류된 人物카드를 작성하여 監視를 더욱 강화하는 등 監視統制機能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社會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閉鎖社會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韓國民族의 傳統을 완전히 말살한 社會化過程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과거 中共의 文化革命기간보다도 더욱 강력한 文化革命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과거의 歷史에서 祖上들이 남긴 모든 文化遺産을 金日成 家系와 그 父子의 偶像化를 위해 말살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開放化되면 客觀的인 史實이 밝혀질 것이 우려되므로 秘密保障을 위해 철저한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經濟發展이 貧困과 疾病을 추방하고 住民의 生活向上과 福祉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고 赤化統一을 위한 투쟁을 위해

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에 비하여 잘 살고 있다는 허위 선전이 개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노출된 것이므로 이를 무엇보다도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個人的 貯蓄이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배제하여 그날 그날을 생활하고 남는 여유를 의도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모든 個人的 富와 成就動機가 말살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社會化過程을 開放시키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계로 北韓의 社會化는 集團主義에 의해 모든 被社會化者를 兵營化한 兵營社會이다. 모든 住民의 身分이 세분화되고, 계층과 계급에 따라 住宅과 服裝과 食生活과 그밖의 모든 생활조건이 결정되는 것이다. 住宅의 空間이 가족수나 個人的 노력과 그 결과인 경제력에 따르지 않고 社會的 身分에 따라 정해지며 服裝도 軍兵과 마찬가지로 身分계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그들의 社會이다. 최근 女性의 衣服이 밝고 가볍게 변화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美的感覺을 살린 女性의 衣裳이 性的 차별을 나타내는 요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北韓社會는 이미 질라스가 주장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계층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社會移動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새로이 대두한 신계급은 그들의 黨權力 독점에 의해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격차를 현저하게 두고, 그 특권을 2 세에까지 상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특권층의 권력상속은 共產黨의 계급투쟁의 궁극의 목표는 舊支配階級(資本家, 地主)을 타파하고 스스로 (黨,

政府幹部)가 새로운 支配階級으로 등장하는데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입증한다.

이론적으로 北韓의 價値觀이나 行動樣式을 나타내는 文化體系(cultural system)는 一元主義(monolitism)이며 韓國의 多元主義(pluralism)와 대조된다. 韓國의 文化는 예컨대 國家的 喪禮行事に 있어서 각각의 宗教에 따라 基督教, 天主教, 佛敎가 同時에 動員될 만큼 多元的이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金日成思想에 의한 抽象的 이데오르기를 實踐的 이데오르기로 강요하여 그것을 위해 조직된 黨에 의하여 이데오르기의 解釋權이 獨占된다. 모든 個人, 被社會化者는 이데오르기의 해석권이 없으며, 오로지 黨이 이를 獨占하는 것이다. 또한 黨은 個人뿐 아니라 北韓內的 모든 社會團體의 규범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이데오르기의 독점에 의해 劃一的으로 規制할 수 있다. 여기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의 어떤 宗教나 文化도 당의 독점된 이데오르기의 규제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北韓社會의 開放에 있어서의 限界性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資本主義社會와의 經濟的 交流와 開放에 따른 어떠한 社會的 行動樣式의 도입도 黨이 獨占한 이데오르기적 비관에 合格되어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社會는 과거 오랫동안 傳統的으로 儒敎理念이 지배되어왔으나 최근 급격히 도입된 西歐文明에 따른 資本主義와 基督教信仰의 확산등으로 多元化된 社會化過程을 進行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社會化는 형식상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一貫된 社會化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社會機構가 같은 社會化學習을 제공하지 않아 斷絶과 矛盾과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다. 한 家族이 다른 宗教를 신봉하며, 한 직장에서 형성된 文化的 規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矛盾과 갈등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社會的 調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이 地球上에 177개의 국가와 民族이 살고 있으며 東과 西, 南과 北이 각각 다른 體制와 經濟發展을 유지하면서 共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로 言語와 文化가 다른 人間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나 國際會議와 經濟的 交流와 文化的 交流를 이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人類의 歷史속에서 韓民族은 우리에게 적합한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되도록이면 모든 國民들에게 적응하기에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社會化를 통해 번영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에 있어서 이와같은 多元化된 社會化過程에서 형성된 價値觀은 즉 바람직한 人間像을 成人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誠實, 勤勉, 創意性, 自立精神, 開拓精神등이며 이에 관련된 德目으로 協同心, 民族的 矜持, 愛國心, 國家觀등 주로 民族과 國家次元의 가치觀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로 妥協, 奉仕, 秩序, 信義, 遵法精神등의 市民倫理가 결여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³²⁾ 이와같

32) 國務總理行政調整室, 靑少年白書, 1979, p.48.

은 현실은 韓國의 社會化過程에 있어 아직도 民主市民精神과 資本主義精神이 뚜렷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또한 靑少年들이 선택한 德目에서도 誠實, 孝道, 個人的인 삶의 목표 등과 民族的 矜持, 애국심, 국가관등이 강조되고 있으나,³³⁾ 成人들과 마찬가지로 民主社會의 덕목이 아직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韓國의 社會化過程에서 장차 점진적으로 위와 같은 社會的 秩序와 倫理가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多元化된 社會化過程에서 社會化의 조화와 一體感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人間像은 社會主義教育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階級化에 있으며, 東歐共產圈의 自由化思想이 고조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韓社會는 對外的 閉鎖性과 對內的 統制의 강화로 體制에 대한 靑少年의 支持度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⁴⁾ 그러나 北韓의 住民들이 정치에 대한 판단력이 없이 集團的 恐怖霧圍氣속에서 盲目的 順從을 바탕으로 하여 外形的으로 표시되는 支持度를 體制에 대한 一體感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體制不滿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써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出身成分으로 前途가 막힌데 대한 不平과 非科學的이고 非倫理的이

33) 前掲書, p.92.

34)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이데오르기教育”,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體系, 서울, 1972, p.172.

며 歪曲된 歷史教育과 金日成偶像化에 대한 회의, 黨幹部의 獨善과 僥倖에 대한 불만, 共產主義의 幻想的이데오르기와 그들의 生活實態의 엄청난 차이에서 오는 좌절, 폐쇄된 社會에서 밖의 世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등이 그러한 요소이다.³⁵⁾

內外通信의 越南歸順者에 의한 分析에 따르면 연령별로 40 대 이상의 계층은 1 차 7 개년계획에 참여했던 경험에 입각해서 과거에 공약한 住民生活의 向上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대한 불신과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비교하여 정치적인 열의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며, 30 대는 가정을 가지고 社會에 진출하여 바쁜생활을 하기에 餘念이 없어 政治的 感覺이 둔화된 채 生活水準이 向上되지 못하는데 대한 회의심과 더불어 유사시에는 환경변화에 따르는 機會主義的 行動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10 대와 20 대의 젊은 층은 아직 社會現實을 모르고 學校에서 배운 共產主義의 이데오르기를 실천하려는 환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金日成과 金正日의 政權에 대한 盲目的인 信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 스스로가 제기하였던 靑少年의 心理的 動向의 종합분석에서도 제기되고 있듯이 젊은이들도 아주 어린 때에는 自我를 의식하지 못하고 中·高等學校를 마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들 스스로의 위치와 北韓의 社會現實에 대한 의문

35) 李瑋鉉,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逸脫과 統制”, 北韓社會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7.

을 갖게 됨은 물론이며 韓國, 美國, 日本 등 外部의 相異한 世界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하게 된다.

예컨대 社會構造에 대해서도 學校에서는 北韓社會가 平等社會이고 階級이 없는 社會라고 배웠는데 어찌하여 大學進學, 職場配置, 로동당入黨, 都市地域居住 등의 모든 生活分野와 進路에 있어 成分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 큰 의문을 품게 된다.

北韓에서도 黨幹部들의 不正腐敗, 官僚主義的 特權意識과 호화생활 등 反社會主義的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회의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分配한다는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일만 시키고 주는 것은 그대로인가에 대한 不滿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日本 등의 資本主義國家가 共產主義의 宗主國인 소련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은 北韓의 社會化過程이 失敗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經濟發展을 위해 資本主義國家와의 經濟交流를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될 경우에 社會問題로 제기될 것이다.

(2) 第2次7個年計劃이후의 經濟政策과 社會變化

1978년 2차7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 北韓은 3大革命小組의 역할을 강화하고 技術革新運動과 함께 科學技術의 開發을 促進하였다.

3大革命小組는 1973년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除隊軍人이며 열성당원인 대학졸업반 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기술자, 일부 女學生을 포함한 4~5만명의 핵심분자를 20~50명 단위로 편성된 小組로 구성하여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각기관과 학교에 모두 파견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 小組는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담당한 최일선 조직으로써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 속도창조운동」과 함께 한층 더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80년대에는 經濟沈滯가 한층 절실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80년대 속도창조운동」등을 전개하여 각종 經濟선동구호와 함께 勞動強化를 위한 人間改造를 강조함으로써 경제난국에 대처하려하였다. 특히 經濟沈滯의 原因이 낙후된 技術과 노후한 生産設備에 있음을 판단하여, 地域別, 工場別로 대중적 技術革新運動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80년대에 펼쳐진 大衆技術革新運動을 간추려보면 採取, 冶金 등 鐵工業部內的 機械化, 自動化, 원격調整化등을 시도하고 農業部內的 品種改良등에 주력하였고, 이를 위해 科學技術者, 理工系大學教授 및 學生과 生産勤勞者등으로 하여금 産學協同體制를 강화하였다.

또한 예컨대 4.15 技術革新突擊隊와 같은 기술혁신운동에서는 新品種油脂作物을 개발한 백설희, 新鑄物法을 창안한 박영철등 個人技術者의 本을 강조한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운동」을 벌였으며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工業部內에서 1979년에 68,900여건, 1980년에 81,600여건의 새로운 발명과 技術革新案을 生産분야에 도입

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한편으로 「새기록 새기준 창조운동」, 「속도창조운동」등 잇따라 제기된 경제운동은 그동안에 있었던 운동이 큰 성과가 없었음을 逆說的으로 立證하게 된다.

그러나 로동신문 사설에 의하면 어쨌든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이 요구하는 것으로 ① 金日成의 路線과 方針, 黨政策의 관철에 대해 無條件的이고 絶對的임을 강조하는 革命氣風과, ② 自力更生의 전투적 깃발아래 艱苦紛奪의 革命精神과 ③ 치밀하고 책임적인 組織政治事業등을 내세우면서 勞動力動員과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³⁷⁾

이와같은 諸現實은 北韓社會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떠한 운동전개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는 限界性이 있는 것이다.

高次元의 技術開發이나 生産이 速度戰과 같은 전투개념에 의하여 向上될 수 없으며, 無條件性和 絶對性을 요구하는 것은 全知全能의 神이 아닌 人間의 限界性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否認하는 카리스마적인 獨裁는 試行錯誤의 限界性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自力更生이라는 經濟運營과 排他적이고 排他的인 政治理念이 經濟發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금년(1984)에 北韓이 合營法의 制定과 北韓 赤十字社가 구호물자 提供을 戒의하는 등의 초조한 제스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벌써 自力更生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36) 内外通信, 1981.6.3.

37) 로동신문, 1983.7.13, 사설.

(3) 社會保障制度

北韓에서 制度的으로 社會保障은 완벽하다. 그들은 社會保障에 대해 「社會主義社會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중신토록 또는 오랜 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人民的 施策」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정에 따르면 社會保障은 制度的으로 완벽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 규정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北韓에서 실시되는 社會保障制度는 일반적으로 소련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는 社會保險, 公的扶助, 社會福祉, 公衆衛生 및 醫療, 원호, 기타 의무교육의 실시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社會保障은 資本主義先進國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北韓의 社會保障制度에 있어 주목할 것은 그들의 규정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社會保障의 규정에 아무리 名文化되어 있는 제도라해도 勞動黨의 규정에 名文化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 效力이 없이 死文化되는 까닭에 규정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日常生活에 필요한 物資를 配給하며, 職業選擇이 제한되고 職場配置를 따라야 하며 모든 個人生活이 통제되고 있는 北韓住民에게 있어 社會保障에 필요한 것을 별도로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資本主義 社會는 원칙적으로 個人이 職業을 선택하고 成就動機에

의해 經濟活動을 하며 장래를 위해 富를 축적하므로 별도로 社會가 生活을 보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個人의 責任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능력이 없거나 그밖에 不意의 사태로 인해 經濟生活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이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라 社會保障制度가 여러가지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個人의 日常의 生活을 국가가 결정하므로 그가 일할 수 없을 때의 生活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社會에 있어서 社會保障은 失業對策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醫療制度와 教育制度등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保障에 있어 個人이 어려운 때를 위한 保障이라는 의미의 制度的 側面보다도 그러한 個人的 需要에 대하여 얼마만큼 質적으로 良好한 便宜(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예를들어 北韓은 모든 住民이 무료로 診療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社會主義憲法 第48條에 「국가는 전체적 무상치료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質에 있어서 良好한) 치료를 해주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難治病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의 生命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치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死亡하게 버려두는가 하는 것은

무료치료를 받는다는 社會保障의 측면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가 전체적 무상치료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킨다는 표현은 그동안에 공고하게 발전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北韓의 醫療制度에 있어서 문제점은 豫防醫學的 方針과 의사담당구역제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이 일정한 住民集團의 담당구역에 맡고 의사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자의 치료수와 담당 구역내의 환자발생수를 기준으로 성적의 우열을 정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깊은 의료혜택이 필요한 중환자와 장기질환의 환자를 외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價格機構를 통한 의료혜택의 부여를 채택하고 있는 資本主義社會의 社會保障問題보다도 한층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人間의 生命이 의사의 성적을 위한 실적평가에 의해 희생당하게 되는 의료제도하에서 무료치료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北韓은 1차 7개년계획기간중 1966년에 9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했고, 1978년에는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 教育制度和 政策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가할 성질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으나 교육정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共產主義的 정치사상교육의 우선원칙과 전면적 技術教育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教育體系는 人民學校 4년, 高等中學校 6년, 大學校 4~6년,

研究院 3~4년, 博士院 2년과 학교전 유치원 2년의 과정인데 이
중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을 포함해서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인
것이다.

學生數와 教員數와 學科內容등에 있어 얼마나 충실한 教育制度가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앞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한 客觀的인 分析과 평가는 생
략하겠다.

